

⑨7 우리 AI로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 검토 배경

글로벌 AI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UN, OECD, G7/G20, APEC, AI 안전 정상회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AI 안전, 데이터 신뢰성, 산업 상호운용성 등 핵심 의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합의한 단일 기준이나 구조는 부재하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은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적 통일성과 투명성을 갖춘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기술력, 데이터 활용 기반, 산업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등 각 부처가 국제 표준화, 다자 협력 외교, 산업 AI 전략,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며 기반을 마련해 왔다. 글로벌 AI 논의는 국가별 이해관계, 산업 경쟁력, 신혼안보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고 주요국과의 공동연구·상호운용성 논의 등 전략적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표준·기술·외교 역량을 국가적 관점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AI 안전성과 데이터 품질 확보, 산업 전반의 AI 전환(AX), 글로벌 상호운용성 기반 구축은 국제사회 모두가 직면한 공동 과제이다. 에이전트 AI, 온디바이스 AI, 물리적 AI 등 기술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산업·데이터·서비스 간 연결성과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다면 국내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 확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기존 부처 간 협력 기반을 한 단계 발전시켜 표준화·국제협력·산업전환·데이터 활용 등 개별 정책을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국가 AI 이니셔티브로 연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AI전략위는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AI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우리의 AI 정책·기술·산업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반영하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기여의 첫 번째 단추이다.

○ 정책 권고사항

- 국가AI전략위는 과기정통부, 산업부(국표원), 외교부 등과 함께 부처별로 흩어진 AI 표준화 체계를 통합하는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26년 3분기까지 구축한다. 산업부(국표원)는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국가AI전략위와 협의를 거쳐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해 AI 안전 및 데이터 등 핵심 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26년 4분기까지 수립하고 주요국과의 표준·인증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적 상호통용성⁹⁰⁾ 확대를 추진한다.
- 외교부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와 협조하여 UN, APEC, G7/G20, OECD, AI Summit, REAIM 등 주요 다자 회의 및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 주도 AI 이니셔티브를 제안·발표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모범사례 확산” 등 AI 글로벌 거버넌스 의제를 선도한다. 외교부는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협조하여 국제 공급망, 통상, 신홍안보 이슈, ODA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6년 2분기까지 설치한다. 외교부,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글로벌 산업 AI·데이터 활용 생태계(버티컬 AI, 온디바이스 AI 등)와 연계하여 산업 특화형 글로벌 AI 리더십 전략을 ’26년 3분기까지 수립한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및 국표원)는 주요 산업의 AI 전환(AX) 과정에서 데이터 및 서비스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AI에이전트’와 ‘물리적 AI(피지컬AI)’를 포괄하는 AI-네이티브(AI-native)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AX 상호운용성 확보 체계’⁹¹⁾를 ’26년 4분기까지 수립한다. 외교부는 과기정통부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AI 생태계 동향을 고려하여 동맹·파트너국과 AX 상호운용성 관련 논의를 추진하고, G7, OECD와 APEC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